



하루에 하나

2026.6.4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519.00원 (+14.70원)

KOSPI

8,801.49 (+13.11, +0.15%)

KOSDAQ

1,026.03 (-24.00, -2.29%)

국고채 10년 금리

4.135 (-0.039%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AI/디지털자산	Agent Economy (블록체인, 에이전트의 OS) [이준호]
방산/기계	2026년 하반기 전망: 중요한 건 아직 꺾이지 않은 업사이클 [채운샘]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	회사채 발행시장 활성화 가능성 증대 [김상만]
자산배분의 창(窓)	연준이 집값을 결정하던 시대는 끝났을까 [이영주]
신흥국 전략	인도 문순 약화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 [김근아]

기업분석

에치에프알	우리보다 확실한 AT&T 벤더사는 없습니다 [김홍식]
디케이티	1Q 호조와 연간 추정치 상향, 신사업 가동 확인 [권태우]

산업분석

완성차 도매판매 동향	자동차 판매는 부진. 로봇과 자율주행 모멘텀을 계속 확인할 필요 [송선재]
카지노	사상 최대 실적인데도 신저가 직전이라니 [이기훈]

Weekly

Weekly Retail-Cos. Letter	5월 화장품, 백화점 견조한 실적 개선 지속 [박종대]
---------------------------	--------------------------------

글로벌리서치

H.P. Enterprise Co.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킨 실적 [강재구]
미국 건설	버크셔의 테일러 모리슨 인수: 주택건설업 확대 [하민호]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 KT&G, 삼성증권, OCI홀딩스, 에치에프알

2026년 6월 4일 | Industry-Indepth

디지털자산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I/디지털자산

Agent Economy (블록체인, 에이전트의 OS)

에이전트 경제의 시작

엔비디아의 CEO 젠슨황은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다른 AI를 고용하는 에이전트 경제가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에이전트 경제란 자율적인 AI 에이전트가 인간과 대등한 경제적 주체로 참여하여 자산 소유, 계약 체결, 가치 교환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기존의 자동화가 인간이 설정한 규칙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에이전트 경제에서의 AI는 목표 지향적 행동, 다단계 추론, 도구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완료하는 행위자로 도약한다. 기존 패러다임은 행위의 주체가 기계라 하더라도 경제적 주체는 인간이었지만, 이제 에이전트로 일치되는 것이다.

블록체인, 에이전트 OS로 진화

블록체인은 에이전트를 위해 탄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에이전트 경제는 블록체인을 필요로 한다. GPU의 역사적 진화와 유사하다. 본래 GPU는 3D 그래픽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그래픽 카드로 탄생했다. 비트코인을 위해 태어난 기술이 아니었지만 한때 비트코인 채굴의 핵심 동력으로 활약했고, 현재는 전 세계 AI 인프라를 지탱하는 가장 귀중한 자원이 되었다. 병렬 연산에 특화된 물리적 설계가 트랜스포머 방식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에 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대한 기술적 도약은 본래의 기획 의도를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 조건에 발맞추어 스스로의 용도를 진화시키며 완성된다. 서클, 코인베이스, 스트라이프, 이더리움은 에이전트를 위한 OS를 블록체인을 통해 구축했다. 빅테크들은 블록체인을 결제 인프라로 채택하고 있다. B2B, B2C 에이전트의 활성화, 점차 에이전트 기반의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블록체인 전반,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들에 수혜가 기대된다.

하반기 에이전트 기반 실수요 증가와 함께 가치 상승 기대

에이전트 경제는 이제 시작 단계다. 실수요 기반의 에이전트 결제가 활성화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량과 트랜잭션이 증가하는 흐름을 기대한다. 특히 빅테크 중심으로 에이전트 커머스가 우선적으로 활성화되는 국면에서는 USDC의 증가폭이 USDT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에이전트 경제 개화가 블록체인을 단순 투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표준으로 전환시키며 시장 전반의 촉매로 작동할 것이다. 디지털자산 시장 투자에서 대표 자산인 비트코인이 가장 확실한 선택지이며 비트코인의 가격 형성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산업의 신뢰 지수를 반영한다. 하반기로 갈수록 에이전트 주도 온체인 지표 활성화, RWA 및 정책 기대감 반영되며 우상향한다는 전망 유지한다. 기존 사이클상 8월까지 단기 저점이 형성될 수 있기에 현물 위주로 점차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2026년 6월 4일 | Industry Indepth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6월 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BUY | TP 1,860,000원 | CP 1,070,000원

한화시스템(272210)

BUY | TP 128,000원(신규) | CP 97,400원

현대로템(064350)

BUY | TP 283,000원 | CP 203,000원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079550)

BUY | TP 1,110,000원 | CP 726,700원

한국항공우주(047810)

BUY | TP 230,000원 | CP 147,000원

HD건설기계(267270)

BUY | TP 192,000원(신규) | CP 147,800원

두산밥캣(241560)

BUY | TP 82,000원(신규) | CP 65,200원

방산/기계

2026년 하반기 전망: 중요한 건 아직 꺾이지 않은 업사이클

방산: 중요한 건 아직 꺾이지 않은 업사이클

하반기 한국 방산은 정세, 실적, 밸류에이션 세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투자포인트 유효하다. 정세는 하반기에도 무기 수요 증가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국방예산 증액 가속화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미국 안보우산 축소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 동맹국들의 자주국방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확보할 때까지 필연적이다. 실적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다. 합산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상반기 YoY +18.7%, 하반기 YoY +56.1%로 추정한다. 약 100조원 수준의 합산 수주잔고를 고려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실적 성장은 걱정되지 않는다. 밸류에이션은 글로벌에서 한국 방산이 가장 높지만 높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2026년, 2027년 한국 방산의 이익증가율이 가장 가파르며 한국증시 재평가 과정에서 동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별 하반기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YoY +62.7%, 현대로템 YoY +22.5%,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YoY +27.0%, 한국항공우주 YoY +137.0%, 한화시스템 YoY +486.2%로 추정한다.

기계: 2000년 이후 세 번의 업황 주기. 길게 보면 네 번째 주기의 출발점

글로벌 건설기계 판매량은 2022년부터 감소세를 기록하다 2025년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이에 2025년 한국 건설기계 업체들의 매출액도 동반 성장 전환했다. 다만 아직 판매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북미 관세 부담이 가중되며 영업이익은 아쉬운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건설기계 업황 바닥이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2000년 이후 글로벌 건설기계 업황은 크게 세 번의 주기가 있었는데 2025년을 기점으로 네 번째 주기가 시작됐다고 판단한다. 글로벌 건설기계 판매량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물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경기, 금리 등의 매크로 변수가 하반기 건설기계 수요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영향은 업황 개선 기율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업황 개선 자체가 뒤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북미 관세 부담은 그간 누적된 평가 인상 효과를 기반으로 점차 상쇄될 것이다. 최근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들이 추가적인 평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영업이익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평가 인상에도 견조한 수요를 고려하면 건설기계 시장은 구매자 우위에서 판매자 우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판단이다. 기업별 하반기 영업이익 성장률은 HD건설기계 YoY +25.0%, 두산밥캣 YoY +4.4%로 추정한다.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2026년 6월 4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rediVille

회사채 발행시장 활성화 가능성 증대

기준금리 인상 시 단기조달 여건 저하에 따른...

올해 상반기 크레딧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조달/운용시장의 단기부동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운용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위험 등 거시적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금리 또한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장기물 회피 심리가 작용하였다. 조달 측면에서도 이 같은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초효과마저 무산되면서 적절한 발행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장단기금리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발행사 입장에서는 단기물의 낮은 금리가 주는 유혹을 떨치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발행도 단기 위주로, 운용도 단기 위주로 형성되다 보니 중장기 발행이 위축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단기금리가 안정됨에 따라 자금조달에 있어 애로는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회사채 금리가 은행 대출금리까지 상회하면서 은행 대출과 같은 대안 조달 또한 장기채 발행의 공백을 메꾸어줄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기류에 변화의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 매파적인 5월 금통위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간 단기금리(대표적으로 CP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에는 기준금리의 안정(동결기조)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통상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인상폭 정도로 상승하곤 했다. 은행 대출금리 또한 단기금리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와의 동행성이 시장금리(국채/회사채 금리)보다는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당사 전망은 연내 2회, 27년 초 1회) 그동안 발행 주체들이 우려왔던 낮은 단기금리의 혜택(?)을 더 이상 누리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그에 따라 단기물에 치중되었던 조달 구조에 변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부진했던 회사채 발행시장이 점차 활기를 띠게 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금리여건 변화 외에도 거시적 여건 또한 연초에 비해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동사태, 금리 상승 지속, 공적채권 공급 지속 등 부담요인이 여전히 산재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상태이고 금융시장에 팽배한 위험선호심리 또한 그 같은 분위기에 일조하고 있다. 4월 이후 하향 안정세로 전환된 신용스프레드는 그 같은 점을 반영한 결과라 판단된다.

따라서 올여름은 일찍 찾아온 여름 더위와 더불어 회사채 발행시장이 다소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신용스프레드에도 긍정적인 작용할 전망이다. 위축된 시장이 활성화되는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 기준금리 인상 시기(2017년 사례)에 회사채 금리는 실제 인상이 단행되기 이전에 상승했다가 이후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막상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 가서는 회사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발행시장 정상화와 그에 따라 현재의 신용스프레드 안정 국면이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이다. 물론 하반기 전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지는 않고 상위 등급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 기간이나 강도가 그렇게 길거나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nalyst 김성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2026년 6월 4일 | Global Asset Research

Asset Allocatio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산배분의 창(窓)

연준이 집값을 결정하던 시대는 끝났을까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미국 주택시장

최근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변화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2026년 1분기 주택 압류 건수는 약 11.9만 건으로 코로나19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QoQ 6.3%, YoY 26.4%) 시장에 나온 매물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높은 모기지 금리와 구매력 부담으로 거래는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 결과, 매물이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주택 가격 상승률 역시 점차 둔화되고 있다. 아직 공급 과잉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수년간 이어졌던 극단적인 공급 부족 국면이 조금씩 완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미국 주택시장은 여전히 낮은 재고와 높은 주택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팬데믹 시기 형성된 초저금리 모기지와 제한된 신규 공급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공급 부족을 만들어 왔다. 특히 상당수 주택 소유자들이 4% 안팎의 기존 모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있어 공급 회복 속도 역시 제한적이다. (lock-in effect) 그럼에도 최근 나타나는 압류 증가와 재고 확대, 거래 둔화는 시장이 서서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금리 인하, 하지만..

그동안 시장은 주택시장 부진의 원인을 높은 모기지 금리에서 찾았다. 실제로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팬데믹 당시 3% 수준에서 6~7% 수준까지 올랐다. 상당수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낮은 금리의 기존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있으며, 이는 거래 감소와 시장 경직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주택시장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모기지 금리는 주택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같은 소득을 가진 가계라도 금리가 하락하면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연준의 정책 경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변수

하지만 앞으로는 금리만으로 주택시장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에는 시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장은 시를 주로 기술 산업이나 주식시장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가 모기지 금리와 주택 수요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있다. CME는 보고서에서 시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 비용과 물가 압력을 낮출 경우 장기금리와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 기반 신용평가와 대출 프로세스 자동화는 대출 심사와 관리 비용을 줄여 모기지 금리의 가산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제시했다. 즉 시는 장기적으로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산배분 / 해외크레딧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그러나 문제는 금리 하락이 반드시 주택 수요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 구매는 단순히 대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과 고용에 대한 기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시가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채용 전략과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면서 소득 구조까지 변화시킬 경우,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주택 구매를 결정하는 가계의 심리는 과거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일부 사무직과 전문직을 중심으로 채용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인력 확대에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구매력이다

주택시장의 본질은 결국 구매력이다. 집을 사는 것은 금리가 아니라 소득과 고용이다.

현재 미국의 주택 구매 부담은 금융위기 직전 주택 버블 시기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모기지 금리 부담이 동시에 누적되면서 실질 주택 구매력은 2006~2007년 버블 정점 당시보다도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단순히 집값이 높은 것이 아니라 소득 대비 주택 가격과 금융 비용 부담이 함께 높아진 결과다.

실제로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미국인은 25%에 불과해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높은 금리 때문만이 아니라 주택 가격 부담과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가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더라도 고용과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주택 수요 회복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첫 주택 구매층과 젊은 세대의 구매력이 악화될 경우 금리 인하 효과는 상당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주택 구매 결정은 금리 수준보다 미래 소득에 대한 확신에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금리의 시대에서 구매력의 시대로

그동안 미국 주택시장은 금리가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였다.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늘고, 금리가 상승하면 거래와 가격이 둔화되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다. 그래서 시장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에 주목하며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을 판단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리만으로 주택시장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주택시장이 직면한 문제는 금융 비용 부담 뿐 아니라, 높은 주택 가격과 악화된 구매력임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에 시가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면서 가계의 소득 구조와 구매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향후 미국 주택시장의 방향은 모기지 금리 자체보다 가계의 구매력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금리 인하가 주택시장 반등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닐 수 있다. 이제 시장은 금리보다 구매력을, 그리고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시 시대의 고용과 소득 구조 변화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2026년 6월 4일 | Global Asset Research

인도

신흥국 전략

인도 몬순 약화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인도 기상청, 몬순 강수량 전망 하향 조정

인도 기상청(IMD)이 남서 몬순(6~9월) 2차 예보에서 인도 전역 강수량 전망치를 장기 평균(LPA)의 90%(±4%)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1차 예보 92%(±5%) 대비 소폭 하향 조정된 것으로, 올해 몬순 강수량이 평년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지역별로는 북동부 인도가 LPA의 94~106%로 평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부 및 남부 지역은 LPA의 94% 미만, 북서부는 LPA의 92%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관개시설 없이 강우에 의존하는 천수 농업 지역이 밀집한 몬순 핵심 지역(MCZ)의 경우, 강수량이 LPA의 94% 미만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반적으로 북동부를 제외한 주요 지역에서 강수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중립 상태인 ENSO가 남서 몬순 기간 중 엘니뇨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상 엘니뇨는 인도 몬순 약화와 연관성이 높은 만큼, 향후 강수 여건은 비우호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강수 부진 현실화될 경우 식품 물가 상승 및 소비 둔화 우려 확대 전망

남서 몬순 강수량과 기후 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식품 물가 상승 우려다. 인도 CPI 바스켓 내 식품 비중은 기존 45.86%에서 36.75%로 조정되며 과거 대비 예드라인 CPI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완화됐다. 그러나 식품은 여전히 CPI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가격은 일상 소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인도 농산물은 재배 시기에 따라 카리프(여름)와 라비(겨울) 작물로 구분되는데, 남서 몬순은 쌀·옥수수·대두류 등 주요 카리프 작물의 작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강수 부진이 현실화될 경우 카리프 작물의 생산 차질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관련 농산물 가격 상승을 통해 식품 물가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소비 둔화 우려다. 인도는 민간소비가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내수 중심 국가이며, 그중에서도 농촌 인구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농촌 소비 흐름은 전체 내수 회복의 지속성을 좌우한다. 지금과 같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국면에서는 내수의 경기 방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남서 몬순 부진으로 작황이 둔화될 경우 농업 생산과 농가소득에 부담이 불가피하며, 이는 실질 구매력 약화를 통해 하반기 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몬순 약화, 인도 증시 재평가의 전제조건인 내수 회복 지속성을 약화시킬 리스크

결국 올해 남서 몬순 약화 가능성은 단순한 기상 이슈를 넘어 식품 물가 상승과 소비 둔화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다. 고유가 장기화로 물가 부담이 이미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기후 불확실성까지 더해질 경우, 인도 내수 회복의 지속성에 대한 경계감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 인도 증시는 고유가와 루피화 약세, 반도체 중심의 수급 풀림으로 신흥국 내 상대 매력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재차 주목받을 여지는 남아 있다. 다만 이는 인도 경제의 핵심 축인 내수소비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기존 성장 경로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신뢰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남서 몬순 부진은 이러한 전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변수인 만큼, 향후 강수 흐름과 작황 여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2026년 06월 0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50,000원
현재주가(6.02) 30,95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1,026.03
52주 최고/최저(원)	38,050/11,580
시가총액(십억원)	411.9
시가총액비중(%)	0.07
발행주식수(천주)	13,309.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41.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2.4
외국인지분율(%)	8.46
주요주주 지분율(%)	
정종민 외 2인	30.6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45.2	273.5
영업이익(십억원)	(0.4)	50.5
순이익(십억원)	(5.3)	36.6
EPS(원)	1,142	5,831
BPS(원)	12,144	18,170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57.1	142.0	138.7	337.3
영업이익	(20.2)	(1.6)	(14.0)	75.4
세전이익	(15.1)	(1.5)	(18.1)	74.6
순이익	(18.6)	(0.3)	(18.6)	59.6
EPS	(1,384)	(23)	(1,397)	4,477
증감율	적전	적지	적지	흑전
PER	(12.82)	(503.48)	(22.26)	6.95
PBR	1.47	1.03	3.10	2.14
EV/EBITDA	(18.37)	37.09	(59.82)	5.48
ROE	(11.34)	(0.21)	(13.82)	38.08
BPS	12,107	11,231	10,048	14,525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l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에치에프알 (230240)**우리보다 확실한 AT&T 벤더사는 없습니다****HFR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0,000원 유지**

HFR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0,000원을 유지한다. 추천사유는 1) 미국내 SI 업체 간 이해관계 고려시 AT&T 프론트홀 공급자로 후지쯔가 유력한만큼 후지쯔 메인벤더인 HFR에 수혜가 예상되고, 2) AT&T의 CAPEX 2배 증액 및 중국산 장비 퇴출로 인한 M/S 증가를 고려하면 내년 HFR 수출실적이 과거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며, 3) 국내외 무선장비 업체는 물론 과거 멀티플 대비 저평가 국면이어서 키맛추기식 추가 급등이 기대되고, 4) 미국 경매 이후에는 국내 경매가 이어지며 주가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미국내 이해관계/레퍼런스 고려하면 이번에도 HFR이 AT&T 공급업체가 될 것

HFR은 다가올 경매에서 또다시 AT&T향 프론트홀 벤더사로 선정되며 실적 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SI 간의 경쟁구도, AT&T의 SI 선정 역사, 오픈랜 동향 등 장비사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그렇다. 중국 장비업체들이 미국에서 퇴출된 후 AT&T가 선택할 수 있는 SI 업체는 에릭슨/노키아/후지쯔/삼성 정도가 있다. AT&T는 2023년 에릭슨을 기지국 메인벤더로 지정하며 기존 노키아 장비를 대거 교체했다. AT&T 벤더의 큰 축으로 에릭슨이 고정된만큼 에릭슨과의 협력 가능성 및 기술 호환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에릭슨은 무선장비 강자이지만 프론트홀에선 입지가 뚜렷하지 않고, 오픈랜을 주장 중인 점이 중요한 변수이다. 결국 에릭슨 입장에서 북미 기지국 시장에서 크게 경쟁하지 않으면서 프론트홀 시장에서 입지가 큰 파트너가 필요한데, 이 경우 후지쯔 원피니티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이다. 이렇게 보면 AT&T-에릭슨-후지쯔 3사가 작년 8월 협력하여 오픈랜 통화 실험을 한 맥락이 이해된다. 그런데 HFR은 당시 후지쯔의 퍼스트 벤더였고, 지금도 긴밀히 협력 중이다. 통신장비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단 점을 고려하면, 곧 경매가 시작하는 현시점에 후지쯔가 HFR을 대체할 공급사를 찾는 모험을 강행하진 않을 것이다.

여러모로 봐도 경매 기대감에 비해 주가가 안 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대급 기대감에 비해 HFR 주가 상승은 부진한 상황이다. 국내외 피어 및 역사적 멀티플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 3/10일 AT&T가 CAPEX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내 무선장비 업체 주가는 약 2배 상승했는데, HFR의 경우 133%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HFR이 현재 무선장비 주도주인 것으로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KMW를 비롯한 타 무선장비주들이 OBBBA 발표를 거치며 꾸준한 주가 상승을 보였던 것과 반대로 HFR은 작년초 일본향 장비 실적 때문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을 기록한 후 고점 대비 주가가 50% 대폭 하락한 바 있다. PBR로 비교해도 작년말 1배, 현재 2.6배 수준인데, 무선장비 수급상 후순위에 와야할 인빌딩/계측기 업체와 비슷한 수치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HFR 주가는 주파수 경매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경매 재료 크기를 감안했을 때 주가는 최소한 과거 PBR 고점인 7배를 넘어서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할 것이라 판단이다.

2026년 06월 04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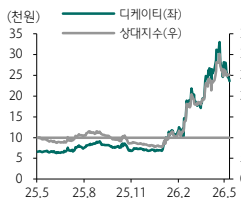
현재주가(6.2) 23,6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1,026.03
52주 최고/최저(원)	33,000/6,280
시가총액(십억원)	472.0
시가총액비중(%)	0.08
발행주식수(천주)	20,001.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32.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3.8
외국인지분율(%)	5.36
주요주주 지분율(%)	
비이치 외 2인	50.5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509	703
영업이익(십억원)	23	48
순이익(십억원)	26	45
EPS(원)	1,285	2,255
BPS(원)	11,379	13,562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364	280	403	426
영업이익	21	15	23	22
세전이익	25	9	36	29
순이익	20	4	27	23
EPS	1,193	248	1,380	1,159
증감율	124.7	(79.2)	456.5	(16.0)
PER	6.7	34.0	5.7	5.9
PBR	1.3	1.2	0.9	0.7
EV/EBITDA	4.5	7.2	4.2	4.0
ROE	19.5	3.3	14.8	11.4
BPS	6,123	7,094	9,087	10,140
DPS	0	0	0	0



Analyst 권태우 tkwon@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디케이티 (290550)**1Q 호조와 연간 추정치 상향, 신사업 가동 확인****1Q26 리뷰: 추정치 큰 폭 상회, 구조 개선 확인**

1Q26 매출액 1,156억원(+33.8% YoY), 영업이익 88억원(+259.8% YoY)으로 영업이익률 7.6%(+4.8%p YoY)를 기록했다. 당사 종전 추정 영업이익 32억원을 약 2.7배 상회하는 호실적이다. 추정치 상회 배경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① 신규 플래그십 출시 시점 이연에도 출하 호조와 폴더블 견조세가 지속된 가운데, 전장 부문 매출 확대까지 가세하며 라인 가동률이 상향 안착되었다. ②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자동화 전환 기조가 구조적으로 작동하며 수율 개선 폭이 확대되었다. ③ ESS BMS는 자체 설계팀 운영으로 설계 마진까지 함께 인식되며, 수익 체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세 요인 모두 일회성이 아닌 사업 구조 자체의 개선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된다.

Auto OLED 양산·로보틱스 충전 모듈 초도 납품 개시

2분기를 기점으로 Auto OLED와 로보틱스 충전 모듈 매출 인식이 동시에 가시화된다. ① 4월부터 국내 완성차 OEM 프리미엄 세단형 Auto OLED 디스플레이 양산 공급이 개시되었다. 국내외 OEM사향 3개년 수주잔고 약 3,300억원이 확보된 점은 향후 실적 가시성의 핵심 근거이며, Auto OLED 매출은 2025년 75억원에서 2026년 415억원, 2027년 1,188억원으로 단계적 레벨업이 예상된다. ② 글로벌 휴머노이드 산업은 2026년을 기점으로 상용화 국면에 진입하는 추세이며, 북미·국내 주요 양산 진영의 로드맵이 잇따라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4월부터 북미 로보틱스 업체형 충전 모듈(POC 단계) 2,000개의 초도 납품이 개시됐다. 시제품 검증을 넘어 양산 전환의 전제 조건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충전 모듈을 시작으로 BMS-FPCA-모션 제어 등 보유 기술 자산을 활용한 복수 휴머노이드 플랫폼 확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 글로벌 모션 제어·액추에이터·배터리 모듈 시장의 고성장 사이클에서 동사의 초기 진입 가치가 부각될 전망이다.

연간 추정치 상향, 포트폴리오 다변화 국면 진입

2026년 연간 실적 추정치를 매출액 5,288억원(+24.2% YoY), 영업이익 308억원(+45.7% YoY)으로 각각 +2%/+24% 상향한다. 1Q 구조 개선이 연간 단위로 확장되는 가운데, ESS BMS는 연초 계획 대비 매출 성장 탄력이 가파르게 강화되는 흐름이다(25년 104억원 → 26년 518억원). 국내 배터리 셀 3사의 북미·국내 ESS 수주 경쟁 가속과 함께 BMS 핵심 공급망 벤더로서의 동반 성장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Auto OLED와 로보틱스 충전 모듈 매출 인식 또한 하반기 추가 동력으로 가세하며, 신사업 매출 기여 폭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4월 27일 공시된 북미 조지아주 신규시설투자 220억원은 ESS BMS와 로보틱스 신사업의 북미 거점 확보를 위한 결정이다. 1차 투자 규모 기준 연 1,200~1,500억원 매출 캐파 확보가 가능하며, 추가 증설 시 2~3년 내 연 3,000억원 규모 매출 인식이 가능한 구조다. 합작 법인 가동이 본격화되는 2027년부터는 ESS BMS·로보틱스가 디케이티의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완성차 도매판매 동향(2026년 5월)



자동차 판매는 부진. 로봇과 자율주행 모멘텀을 계속 확인할 필요 | 2026.6.4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Key Insight: 자동차 실적으로는 주가 오버슈팅 국면. 하반기 로봇 및 자율주행 모멘텀이 강화

- 판매동향**
- 현대차/기아의 5월 글로벌 도매판매는 32.5만대/27.8만대로 -8%/+3% (YoY)
 - 합산 글로벌 도매판매는 60.3만대(-3.2% (YoY)). 내수/해외 판매가 각각 -13%/-1% (YoY)
 - 합산 도매판매는 지난달 -0%에서 -3%로 하락폭 확대
- 달성률**
- 현대차/기아의 2026년 도매판매 목표는 1%/7% 증가한 415.8만대/335.0만대
 - 5월 누적 판매는 각각 162.8만대/133.5만대로 -4.7%/+1.3% (YoY). 계절성을 감안한 달성률은 각각 39.1%/39.8%
 - 이는 과거 3년 평균 달성률 40.5%/41.0% 대비 하회한 수준. 6년 평균 달성률 39.7%/40.5% 대비로도 모두 하회한 수준
- 주가**
- 산업수요 저성장 및 경쟁심화가 이어진 가운데, 국내 부품공급 차질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차/기아 판매는 목표치를 하회 중
 - 가장 큰 원인은 내수 판매의 부진. 5월 누적 현대차/기아의 내수 판매는 -11.7%/+4.7% (YoY) 변동. 합산 -4.5% (YoY) 기록
 - 기아가 EV3/EV5 등 전기차 모델과 PV5의 신차 효과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내수 판매 기록
 - 현대차/기아의 5월 누적 합산 내수 판매는 과거 6년/3년 평균 대비 95%/93% 수준. 글로벌 판매 중 비중은 16.9%로 1.9%p/1.0%p 하락
 - 한편, 현대차/기아의 5월 누적 해외 판매는 -3%/+1% (YoY), 합산으로는 -2% (YoY) 기록
 - 미국 내 SUV 및 HEV 판매 호조와 유럽 내 EV 라인업 확대에도 시장수요 부진과 경쟁심화의 영향으로 소폭 하회
 - 2026년 자동차 부문의 실적은 '물량 정체 vs. 환율 상승과 관세율 인하 효과'로 이익 소폭 증가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
 - 주가 급등으로 완성차 Valuation은 글로벌 Peers 및 Historical 대비 크게 상회. 즉, 자동차 제조만의 Valuation은 오버슈팅 국면
 - Valuation Multiple 상승의 추가 촉매로서 로봇 및 자율주행 모멘텀을 주목할 수 밖에 없음
 - 테슬라 옵티머스 3세대 공개 및 중국 유니트리 상장, BD의 RMAC 개소 및 공장 실증 테스트 시작, BD의 IPO 중간사 선정 등이 주요 촉매
 - 자율주행 부문에서는 SDV Pace Car 및 L2+ G90의 기술 경쟁력 확인이 Valuation 프리미엄을 결정할 중요 이벤트

현대차: 5월 도매판매 -7.7% (YoY). 내수/해외 -23%/-5%

- 도매판매**
- 5월 글로벌 도매판매 32.5만대(-7.7% (YoY))
 - 내수 4.5만대(-23% (YoY))/해외 28.0만대(-5% (YoY)). 해외판매 비중 86.1%(+2.8%p)
 - 내수에서 승용 1.5만대(-7%), RV 1.6만대(-32%), 소형 0.6만대(-20%), 대형 0.2만대(-8%), 제네시스 0.6만대(-35%, 비중 13.6%)
 - 내수 승용: 아반떼/쏘나타/아이오닉6/그랜저 -30%/-0%/+39%/+13% (YoY)
 - 내수 RV: 캐스퍼/코나 +21%/+9% (YoY). 투싼/싼타페/팔리세이드/아이오닉9 -47%/-42%/-76%/+71% (YoY)
 - 내수 제네시스: G80/GV70/GV80 -40%/-26%/-34% (YoY)
 - 내수 친환경차: 1.8만대(-18%). 친환경차 비중 40.2%(+2.3%p). EV/HEV 각각 0.8만대/1.0만대(+62%/-44%)
 - 내수 EV: 캐스퍼 1,152대(+68%), 아이오닉9 1,482대(+71%), 아이오닉6 1,049대(+39%), 아이오닉5 2,575대(+105%), 넥쏘 338대

기아: 5월 도매판매 +2.7% (YoY). 내수/해외 -1%/+3%

- 도매판매**
- 5월 글로벌 도매판매 27.8만대(+2.7% (YoY))
 - 내수 4.5만대(-1% (YoY))/해외 23.3만대(+3% (YoY)). 해외판매 비중 83.8%(+0.6%p)
 - 내수에서 승용 1.1만대(-13%), RV 2.9만대(-3%), 상용 0.5만대(+84%)
 - 내수 승용: 모닝/레이 +46%/-15%. K5/K8 -26%/-33%
 - 내수 RV: 니로 +3%. 셀토스/스포티지/쏘렌토/카니발 -26%/-10%/+1%/-32%. 타스만 -82%
 - 내수 친환경차: 2.9만대(+34%). 친환경차 비중 63.8%(+16.5%p). EV/HEV 각각 1.2만대/1.7만대(+113%/+6%)
 - 내수 EV: EV3 3,021대(+62%), EV4 1,196대(-13%), EV5 2,581대, EV6 905대(-5%), EV9 263대(+48%), PV5 2,303대

2026년 6월 4일 | 산업분석_Issu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롯데관광개발(032350)

BUY | TP 28,000원 | CP 18,050원

파라다이스(034230)

BUY | TP 25,000원 | CP 13,680원

*CP 2026년 6월 2일

카지노

사상 최대 실적인데도 신저가 직전이라니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및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데 주가는 신저가 흐름

마카오 카지노의 5월 및 누적 CGR은 각각 \$28억(+7% YoY)/\$134억(+11%)으로 예상치 상회 및 두 자릿수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카오 카지노 인덱스는 연 초 대비 약 21% 하락하면서 국내 외인 카지노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는 업황보다는 회사별 이슈가 반영된 것으로, MGM China는 브랜드 로열티 인상 및 VIP hold 부진, Wynn Macau는 신규 호텔 건설에 따른 Capex 부담 등에 따른 것이다. 반면 국내 외인 카지노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및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며, 한일령의 수혜에 더해 높은 유가로 단거리 노선 확대가 이어지면서 부산도 높은 수혜가 나타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는 하반기 각각 롤링 경쟁력 강화와 신규 인수 호텔의 램프업 효과로 지속적인 사상 최대 흐름이 이어질 것인데, 주가는 오히려 신저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시 관련 산업의 수급 쏠림 현상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상 최대 실적에도 이런 극단적인 저평가가 이어지고 있기에 당연히 지속적인 비중확대를 추천한다.

롯데관광개발 5월 매출액 494억원(+19% YoY)

롯데관광개발의 5월 드랍액 및 카지노 매출액은 각각 2,568억원(+19% YoY)/494억원(+19%)을 기록했다. 방문객 수는 6.3만명(+23%)으로 처음으로 6만명을 상회했으며, 미니멈 20~30만원의 고액 베팅 테이블 비중이 높아지면서 홀드율도 꾸준히 18~2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6월에는 5주년 바카라 대회가 있으며, 롤링 경쟁력 강화 및 포커 테이블 추가 등으로 4~5월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예상된다. 2분기는 역대 최대 분기 카지노 매출 및 컨센서스(509억원)를 상회하는 영업이익(540억원)이 예상되는데도 현 주가는 2027년 예상 P/E 13배로 구조적인 성장과 이자 비용 감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5월 매출액 989억원(+21% YoY)

파라다이스 5월 카지노 매출액 989억원(+21% YoY)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드랍액도 사상 최대인 7,653억원(+19%)으로 지난 2년 간 평균 수준인 약 6,000억원을 크게 상회했으며, 2분기는 처음으로 분기 드랍액 2조원을 상회할 것이다. 하얏트 리젠시 인수 효과가 시작되는 씨티 드랍액은 3,992억원(+18%)으로 역시 사상 최대이며, 최근 외국인 관광객 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부산도 724억원(+59%)을 기록했다. 3분기에는 월 카지노 매출액 1,000억원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는데,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높은 괴리로 하반기 월별 평균 매출액을 상당히 보수적인 8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월 평균 850억원만 가정해도 올해 영업이익은 2,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다. 하얏트 리젠시 인수 효과가 온기로 반영되는 2027년 예상 P/E 기준 10배로 극단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Weekly Retail-Cos. Letter

5월 화장품, 백화점 견조한 실적 개선 지속 | 2026.6.4



Analyst 박종대 forsword@hanafn.com

- ✓ 5월 화장품 수출 함의: 일본의 부진과 중국의 회복
- ✓ 올리브영의 미국 진출 본격화
- ✓ 롯데쇼핑: 국내외 백화점이 견인하는 실적 개선

I. 주가 분석과 투자전략

1. 5월 화장품 수출 함의: 일본의 부진과 중국의 회복

- 5월 화장품 수출은 양호했다. YoY 24% 증가하면서 고신장을 이어갔다. 역시 미국(YoY 32%)이 강한 리바운드를 보여주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했고, 유럽이 YoY 70%(9개국 합산) 증가하는 강한 모멘텀을 보였다. 유럽은 3대 화장품 수출 지역, 영국(YoY 114%), 폴란드(YoY 132%), 네덜란드(YoY 161%)가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폴란드는 처음으로 월 수출 5천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앞자리가 또 바뀌는 기염을 토했다. 실리콘투의 유럽 공략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또 그만큼 유럽 내 실리콘투의 역할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아쉬운 점은 일본 수출이 YoY 15% 감소했다는 점이다. 1년 6개월만에 월 수출액이 6천만달러 대로 떨어지는 부진을 보였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색조 비중이 높는데, 최근 시장 포화와 경쟁심화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일본/색조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아이패밀리에스씨, 클리오 등 브랜드 업체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바람직해보인다.
- 중국 수출이 YoY 2%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다. 이번 5월 수출 실적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설/추석 기간차 영향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1년 만에 YoY (+) 전환이다. 2025년 한국 화장품 수출이 YoY 10% 증가에 그친 가장 큰 이유가 대 중국 수출 부진이었다. YoY 23%나 감소하였다. 2026년 중국 수출이 YoY (+)로 돌아선다면 2026년 수출 증가율은 YoY 20%를 훌쩍 넘을 수 있다.
- 여기서 주의해야할 게 있다. 중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이 회복된다고 해서 설화수/후 매출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도 중저가 인디 브랜드 수요이다. 중국의 10~20대들은 꺾차오(애국) 소비를 떠나 글로벌 트렌드를 추종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미국에서 히트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글로벌이 에이피알, 달바글로벌이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2026년 6월 2일 | Global Equity

H.P. Enterprise Co. (HPE.US)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킨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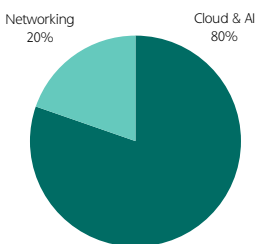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34.28 USD
CP(6.1) 47.00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기술 하드웨어, 스토리		
홈페이지	www.hpe.com		
시가총액(십억USD)	62.4		
시가총액(조원)	94.4		
52주최고/최저(USD)	47.97/17.025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INC	13.11		
블랙록	8.95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64.5	114.2	171.0
상대	59.4	102.7	143.0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30,127	34,296	40,941	43,108
영업이익	3,168	3,353	4,592	5,127
순이익	2,655	2,753	3,479	3,915
EPS(USD)	1.99	1.94	2.43	2.73
EPS(YOY, %)	(7.4)	(2.5)	25.3	12.1
ROE(%)	10.5	10.5	13.9	14.5
PER(배)	9.8	12.6	17.8	15.6
PBR(배)	1.0	1.3	2.5	2.3
배당률(%)	2.7	2.1	1.2	1.3

자료: Bloomberg, 마나증권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구조적인 실적 성장 중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이하 HPE)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HPE 실적은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선호도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등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반의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HPE는 서버 모듈 업체인 DELL에 이어 호실적과 함께 실적 전망치를 상향했다.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메모리, 원자재 등 높아진 부품 가격으로 인한 모듈 기업들의 마진 훼손을 우려하기도 했었지만, 상승한 비용을 가격에 전가해 견조한 수익성을 보여줬다.

HPE의 강한 실적은 인공지능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번 실적에선 사용 서버뿐만 아니라 전통 서버 수요도 강했다고 평가했다. 에이전틱 AI 및 추론형 AI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에이전틱 AI 및 AI 추론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HPE의 실적은 당분간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 HPE도 주문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비용이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가격 전가도 가능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를 기대로 바꾸기 충분하다.

컨센서스를 상회한 FY 2Q26 실적

HPE의 FY 2Q26 실적은 매출액 107억 달러(YoY +40%, QoQ +14.8%), 매출총이익 39억 달러(YoY +75.4%, QoQ +15.7%), 영업이익 14억 달러(YoY +132.1%, QoQ +20.4%), EPS 0.79 달러(YoY +107.9%, QoQ +21.5%) 등이다. 각각 시장 컨센서스를 9.2%, 17.7%, 40.5%, 49.7% 상회했다. 영업이익률은 13.3%(YoY +5.3%p, QoQ +0.6%p)다.

CFO는 호실적의 이유를 전통 서버 및 네트워킹 수요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전통 서버 수요 호조의 원인은 에이전틱 AI와 추론형 AI 투자가 늘어난 덕분이다. 네트워킹 사업부에선 포트폴리오 전반의 판매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강한 수요 덕분에 제품 판매 단가도 인상할 수 있었고, 수익성 좋은 제품도 많이 팔렸다고 한다. AI 관련 전체 수주잔고는 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거의 두 배 수준 확대됐다. AI 시스템 수주잔고는 59억 달러다.

GAAP 기준 영업이익은 7억 달러, 순이익은 6억 달러로 Non-GAAP 기준 영업이익 및 순이익과 괴리가 크다. Juniper 인수 관련 무형자산 상각, 주식보상비용, 인수 및 처분/기타 비용, Catalyst 비용절감 프로그램 관련 비용, 지분 관련 항목 등이 조정된 영향이다.

분기 및 연간 가이드런스

HPE 전사의 FY 3Q26 가이드런스는 118억 달러(YoY +29.2%, QoQ +10.5%), EPS 0.91 달러(YoY +105.7%, QoQ +14.1%)다.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8.4%, 56% 상회한다. EPS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데에는 영업 레버리지 개선과 함께 HPE가 보유하고 있던 중국 H3C 지분 매각 관련 회계효과가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사업부별 매출 가이드런스는 네트워킹 29억 달러(YoY +75.5%, QoQ +7.9%), 클라우드 & AI 85억 달러(YoY +18%, QoQ +10.4%)다.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2.3%, 10.1% 상회한다.

HPE는 FY 2026 가이드런스를 상향했다. 상향한 FY 2026 매출액 전망치는 449억 달러(YoY +31%)로 이전 제시했던 예상 매출액 409억 달러 대비 9.6% 상향됐다. EPS 가이드런스는 3.4 달러(YoY +73.2%)로 FY 1Q26에 발표한 2.42 달러보다 40.5% 확대됐다. FY 2027 재무 프레임워크 기준 매출은 494억 달러(YoY +10%), EPS는 3.88 달러(YoY +14%)다. Factset 컨센서스 대비 14.6%, 40.9% 양호하다.

사업부별 FY 2026 연간 매출액 가이드런스는 네트워킹 113억 달러(YoY +73.5%), 클라우드 & AI 328억 달러(YoY +23%)다. 네트워킹에는 Juniper 인수 연결 효과가 반영됐다. 정규화 기준 전년 대비 10% 성장할 것이라고 HPE는 설명했다.

FY 2Q26 사업부별 실적

HPE의 네트워킹 사업부 매출은 27억 달러(YoY +148.2%, QoQ -0.6%)로 컨센서스를 1.6% 상회했다. Juniper 인수 효과가 반영됐으며, 정규화 기준으로 약 10% 성장한 수준이다. 부문별로 Campus & Branch 13억 달러(YoY +50.2%, QoQ +7.7%, 정규화 기준 YoY +10%), 데이터센터 3억 달러(YoY +233.3%, QoQ -27.9%, 정규화 기준 YoY +6%), 보안 3억 달러(YoY +155.1%, QoQ +7.1%, 정규화 기준 YoY +18%), 라우팅 8억 달러(QoQ -0.6%, 정규화 기준 YoY +9%) 등이다. AI 네트워킹 수요가 강하며, FY 2026 말까지 누적 주문 목표를 최소 20억 달러로 상향했다.

클라우드 & AI 사업부 매출은 77억 달러(YoY +22.9%, QoQ +21.7%)로 컨센서스를 12.7% 상회했다. 부문별로 서버 55억 달러(YoY +32.7%, QoQ +28.9%), 스토리지 12억 달러(YoY +2.4%, QoQ +10.7%), 금융서비스 9억 달러(YoY +5.6%, QoQ +3.2%)다. 서버 매출은 시장 컨센서스를 17% 상회했다. HPE는 CPU 중심의 전통 서버 주문이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증가했다고 설명했으며, 추론과 에이전틱 인공지능 수요 덕분이라고 했다. 강한 수요 덕분에 제품 단가도 인상에 부품가격 상승을 만회할 수 있었다. AI 시스템의 수주잔고는 5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번 분기 신규주문은 18억 달러다. HPE는 AI 시스템 매출이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며, 4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6월 4일 | 글로벌 산업분석

미국

미국 건설

버크셔의 테일러 모리슨 인수: 주택건설업 확대

버크셔의 주택건설 포트폴리오 추가

지난 1일(현지시각),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주택건설사 테일러 모리슨 홈(TMHC.US)을 전액 현금 인수했다. 테일러 모리슨 홈은 미국 내 6위권 주택건설사로, 전국 21개 주에 걸쳐 약 350개 이상의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며, 2025년말 기준 연간 신규 주택인도량은 약 1.3만호의 중견 홈빌더다. 이번 인수 규모는 총 기업가치 약 85억달러, 인수 가격은 주당 72.50달러로, 5월 30일 종가 58.50달러 대비 약 24% 프리미엄이 반영됐다. 인수 거래는 2026년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며, 인수 완료 후 테일러 모리슨 홈은 NYSE에서 상장 폐지된다. 발표 당일 주가는 약 22% 가량 상승한 71.55달러에 마감했다.

주택건설업에 대한 저점 매수로 판단

현재 미국 주택시장은 고금리와 거래량 둔화로 위축된 국면으로 이번 인수는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대규모 저점 매수라고 평가된다. 신임 CEO 아벨은 “더 많은 미국인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건축 사업을 통합하겠다”고 밝히며, 장기 수요(구조적 공급 부족, 가구 분화, 특정 지역 인구 증가 등)를 보고 지금의 침체를 오히려 진입 기회로 보았다고 언급했다. 버크셔는 이미 Clayton Homes(제조주택)와 다수의 전자재 업체(MiTek, Benjamin Moore 등), 부동산 중개 네트워크(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를 보유하며 부동산업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어느정도 이룬 상태다. 여기에 테일러 모리슨의 전통 단독주택 건설과 임대 비즈니스를 추가하여 토지-자재-시공-금융-판매까지 포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두 홈빌더 계열사의 신규 인도 물량(Clayton 9,953호, TMHC 12,997호)을 합치면 총 약 2.3만호로, 2025년 기준 버크셔의 주택부문은 D.R호턴(8.5만호), 레나(8.4만호), Pulte(2.9만호)에 이어 미국 4위권 빌더로 올라설 것으로 추정된다.

버크셔의 주택건설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

미국 주택건설 시장은 이미 상위 빌더 집중도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였다. 상위 50개 신규 주택 시장에서 톱10 빌더의 평균 점유율이 2023년 78.2%에서 2024년 79.3%로 상승했을 정도로, 대형 빌더 과점화 흐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버크셔-테일러 모리슨 딜은 개별 기업의 외형 확대를 넘어 미국 주택건설 시장을 소수 대형 플레이어 중심의 플랫폼 경쟁 구도로 한층 심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미국 주택건설 시장에서 버크셔의 전략적 영향력과 협상력은 과거와는 다른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6/1	317,000	360,500	13.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현대차 (005380.KS)	6/1	723,000	729,000	0.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와 인센티브 부담에도 HEV 비중 사상 최대 수준까지 확대되며 제품 믹스 개선 지속 단순 자동차 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AI 프리미엄 구간 진입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6/1	458,000	442,500	-3.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S 출하 증가와 AMPC 증가 효과 맞물리며 3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 예상 ESS 시장 확대와 빠른 CAPA 증설에 따른 2028년 이익 추정치 상향 가능성 유효
HD현대중공업 (329180.KS)	6/1	696,000	673,000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건조 Mix 중 저마진 상선 비중 높아 향후 개선 여력이 경쟁사 대비 많아 데이터센터향 엔진 공급 수주를 통해 발전용 엔진 시장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대 전망
KT&G (033780.KS)	6/1	184,700	184,600	-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담배의 두 자릿수 성장과 국내 필연 점유율 상승으로 호실적 기대 자사주 소각·신규 매입 및 배당 확대 기조가 이어지며 모범적 주주환원 부각될 전망
삼성증권 (016360.KS)	6/1	119,800	120,600	0.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로커리지·WMB 수수료가 모두 개선되며 리테일 강세 국면의 실적 레버리지 부각 국내중시 거래대금 확대와 IBKR 외국인 통합계좌 출시로 투자자 저변 확대 기대
OCI홀딩스 (010060.KS)	6/1	349,500	316,500	-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에치에프알 (230240.KQ)	6/1	31,850	30,950	-2.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미국 AWS-3 재경매를 시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주파수 경매 예정 AT&T의 CAPEX 확대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퇴출에 따른 북미 통신장비 투자 수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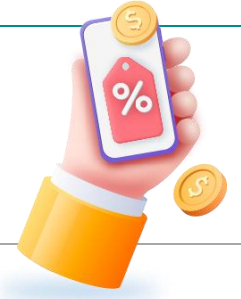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38%	-6.21%p	+83.70%	+4.3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현대모비스 (012330.KS)	6/1	768,000	759,000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 부문, 유럽-미주 수요 호조와 판가 인상, 우호적 환율 효과로 26%대 고마진 회복 보스턴다이내믹스향 로봇 핵심부품 내재화로 로봇 현금흐름 가치 부각될 전망
삼성전기 (009150.KS)	5/26	1,340,000	1,813,000	3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 타이트한 수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삼성증권 (016360.KS)	5/26	129,900	120,600	-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로커리지·WM·IB 수수료가 모두 개선되며 리테일 강제 국면의 실적 레버리지 부각 국내증시 거래대금 확대와 IBKR 외국인 통합계좌 출시로 투자자 저변 확대 기대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316,500	18.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2,360,000	12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360,500	115.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두산에너지빌리티 (034020.KS)	4/1	91,800	100,000	8.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2026년 에너지빌리티 부문 가이드선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20.3조원 제시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99,000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1,252,000	326.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4.93%	-22.76%p	+58.34%	-20.9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52,000	7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2,900	-1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5,390	3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900	3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607.81	7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전력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PHQ (미국 대형 켈리티 주식)	2026.03.23	75.80	85.03	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7.30	2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7.20	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5.31	6.1	6.2	6.3	6.4	6.5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5월 제조업 PMI (50, 이전치 50.3) 중국 5월 서비스업 PMI (50.1, 이전치 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수입 (20.8%, 이전치 16.7%) 한국 5월 수출 (53.2%, 이전치 48.0%) 한국 5월 제조업 PMI (54.8, 이전치 53.6) 일본 5월 제조업 PMI (54.5, 이전치 54.5) 미국 5월 서비스업 PMI (55.1, 이전치 55.3) 유로존 5월 제조업 PMI (51.6, 이전치 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CPI (3.1, 이전치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0.0) 미국 5월 서비스업 PMI (E 51.0, 이전치 5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존 5월 서비스업PMI (E --, 이전치 4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존 4월 PPI (E --, 이전치 2.1%) 유로존 1분기 GDP (E --, 이전치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5월 실업률 (E --, 이전치 4.3%)
6.7	6.8	6.9	6.10	6.11	6.12	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전기대비/전년대비 1분기 GDP F (E --/--, 이전치 0.5%/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1분기 전기대비/전년대비 GDP A (E --/--, 이전치 1.7%/3.6%) 중국 5월 수출 (E --, 이전치 14.10%) 중국 5월 수입 (E --, 이전치 25.30%) 미국 4월 무역수지 (E --, 이전치 -\$60.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전월대비/전년대비 PPI (E --/--, 이전치 2.3%/4.9%) 중국 5월 PPI (YoY) (E --, 이전치 2.80%) 중국 5월 CPI (YoY) (E --, 이전치 1.20%) 미국 5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E --/--, 이전치 0.60%/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실업률 (E --, 이전치 2.8%) 유로존 5월 기준금리(주요재용자금리) 결정 (E --, 이전치 2.15%) 미국 6월 1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미국 5월 전월대비/전년대비 PPI 최종수요 (E --/--, 이전치 1.40%/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4월 전기대비/전년대비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0.8%/2.3%) 미국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A (E --, 이전치 44.8)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